

두 얼굴의 마법사



신 세 철 의
쉬운 경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무엇들을 하찮게 여기고 엉뚱한 무엇에 매달리다가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기도 한다. 그들은 소중한 인생을 제 스스로 망쳐버리고 나서도 자신이 아닌 세상을 탓하며 원망의 굴레를 벗어 버리지 못한다. 욕심에 눈이 어둡다보니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혼동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기 때문일 것이다. 바른대로 말해,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들이 제 목숨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재물과 권세는 탐욕과 공포로 얼룩진 오물덩어리에 다름없다.

어떤 누구는 근면검소한 자세로 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하게 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니 점점 더 여유로운 모습이 얼굴에 나타났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매사에 감

사하면서 일을 하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잡자리에 든다고 하였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자신이 어찌 아니 행복하겠는가?

반대로 다른 누구는 어찌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듯이 거들먹거렸다. 살기가 넉넉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인간다운 면모가 조금은 있었는데 쌓아올리는 돈의 높이가 높아가면서 오만과 편견에 물들어 갔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심술을 부리며 의기양양해 한다. 겉으로는 오기를 부리며 으스스했지만 속내는 조금증에 빠져들어 초조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영문 모를 돈을 움켜쥐고부터는 남들이 열심히 하는 꼴을 못보고 뒤에서 얼토당토않은 꾀속말을 늘어놓았다.

돈을 언제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여 몇 사람을 감동시켰다. 말과는 다르게 점점 더 돈에 대한 탐욕이 커다는 그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그가 가진

돈은 뗏목이 못한 돈이라는 짐작이 갔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돈으로 자선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갔다. 나중에야, 그 분야에서 '뇌물 네고시에이터'라는 입소문이 났는데, 그 동료가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되어 그를 교화 받게 만들었다. 풀려나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더욱 돈에 결심이 들려 일그러진 행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하고 많은 불행은 대부분 스스로 짊어진 탐욕과 원망의 보따리에서 비롯되기 쉽다. 옛말에 "부귀공명이 사라지는 길을 직접 따라가서, 그 결말을 지켜보면, 탐욕이 저절로 가벼워진다.(功名富貴直從滅處, 觀究竟則貪戀自輕.)" 또 "횡역(橫逆, 도리에 어긋나는 행실)과 곤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직접 따라가서 유래를 따져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橫逆困窮直從起處, 究由來則怨尤自息. 채근담)"하였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탐욕에서 벗어나 인간의 도리에 충실해야 진정한 행복이 기다린다는 말이다. /경제칼럼니스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신중해야



기 지 수 중
채 윤 정 (산업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성중·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후 이를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 같이 담겨 있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과,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규제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외산 사업자까지 포함되고, 삼성SDS, LG CNS, SK C&C와 같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한 부가통신사업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만큼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카카오도 이번 사태로 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제대로 갖출 것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포함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신생기업들이 IDC를 추가로 구축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비용을 최소 2배 이상 들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개정안에 담긴 규제는 미국과 비교할 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한국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발전이 해외에 비해 많이 뒤쳐지게 될 수도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터센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cho@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 12월 6일 (음 1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팔자에 자식이 없다더니 상팔자가 됐다. 48년생 밝은 표정이 아니니 표정부터 바꿔보라. 60년생 재운이 없다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운을 부르는 방법. 72년생 이직은 불가. 84년생 준비된 바 없이 집을 나와 방향하지 말라.
- 소** 37년생 동업이 다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소에 쌓은 신용이 기회로 다가온다. 61년생 사랑 타령하지 말고 움직여라. 73년생 상사하게 잘하는 것이 내일을 편하게 한다. 85년생 상가보다는 집을 사는 것을 고려.
- 호랑이** 38년생 여항 속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0년생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62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74년생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매사 주의하도록. 86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하는데.
- 토끼** 39년생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라. 51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랴. 63년생 새사보다 옛사람이 낫다. 75년생 구름 속에도 태양은 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7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
- 말** 40년생 인생의 휴식이 없어 무척 고단할 터. 52년생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단이 필요. 64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하고 운동하라. 88년생 이직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 뱀** 4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날. 53년생 약속이 증폭될 수 있으니 실수 없이 반드시 메모. 65년생 날씨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라. 77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물이 들어온다. 89년생 멋진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다.
- 닭** 42년생 가는 사람도 한번은 잡아야 한다. 54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66년생 사공이 많은 면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의견통일이 우선. 78년생 공들인 동덕이 기회로. 90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떠나는 게 살.
- 개** 4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55년생 성공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간다. 67년생 심드렁한 날이니 기분전환이 필요. 79년생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91년생 불어오는 바람이 근심을 가져간다.
- 원숭이** 44년생 조인도 사람 봐가며 따라야 한다. 56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68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편안. 80년생 기회는 스스로 잡는 것이니 노력을 해라. 92년생 시간이 가는 것은 언제나 아쉬운 법이다.
- 닭** 45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치른다. 57년생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 69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게 상책. 8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투자에 주의. 93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하도록.
- 돼지** 46년생 후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 58년생 연인에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0년생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 82년생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듯 모든 것이 순조롭다. 94년생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해 보라.
- 돼지** 47년생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집을 단장 한다. 59년생 평생 무능력한 것도 부전자전. 71년생 식은 죽 한 그릇도 나눠 먹는 것도 사랑. 83년생 앞서려고 늘 돈에 집착하니 너무 괴롭다. 95년생 이루고자한다면 공부하고 실천을 해야.



김상회의四季 교각 충살에 보험을

요즘 들어 필자는 각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 기묘생 음력 정월 생 아들을 둔 C여인은 아들의 대입 수능을 치른 뒤 상담을 온 적이 있었다. 벌써 4년도 더 된 시점의 얘기다. 실력에 비해 성적이 저조하게 나와 걱정이라며 방문을 했었다. 그 때 필자는 인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는 수원이나 원주에 있는 지방 캠퍼스 학교가 지역적으로 호응이 작용함을 알려주었던 기억이 난다. 아들학교 선택은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원거리 통학 관계상 차를 사주면 자동차보험을 들으라했었다.

몇 년 전 그 때 필자가 아들의 교각살과 충살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까지 꼭 들어 놓으라고 당부했었다. 결론적으로 그 덕으로 도움이 되었다며 기뻐하며 안 될 것 같아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다. 애기인즉슨 아들의 사주를 보면서 학교 진로 외에 필자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C씨의 아들 팔자에 교각살이 있는데 충살이 대운으로 들어오니 분명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일을 겪으니 부적 차원에서라도 꼭 조건이 좋은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한 것이다.

다시 내어 놓는 생년월일을 살펴보니 20살 때부터 바뀌는 대운에 충살 기운이 강했다. 사주구조에 교각살이 확인하다. 세운까지 보니 스물 두세살이 되는 경자년 신축년에 그 기운이 더 강했다. C씨의 아들은 신축년 5월에 과 친구들과 함께 국도를 달리다가 추돌사고를 내었다. 차체는 폐차 수순을 밟아야 할 정도 많이 상했고 양차 탑승자들 역시 최장 12주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 치료비용은 물론 차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률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좀 비싸도 운전자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것이다. 사고소식을 들은 순간 필자생각부터 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3			
		7			6
				4 2 5	
7	2		3		
	6 5			8 9	
		9		2	1
3 8 1					
	2		4		
				9	

		6			3
3	1			7	6
8		1			2
		3 7			
		4	6		
			5 1		
	3			8	
5	8				3 4
					8
6					

정답

8	6	1	9	8	2	7	9	
2	8	1	7	8	9	9	2	6
9	7	9	2	6	2	1	8	8
1	2	2	9	9	6	7	8	8
6	8	8	2	2	7	9	9	1
7	9	9	8	1	8	2	6	2
9	2	7	8	8	1	6	2	9
6	9	8	9	7	2	8	1	2
8	1	2	6	2	9	8	9	7

2	1	8	7	8	9	2	6	9
7	9	8	2	6	2	8	1	9
9	6	2	8	1	9	2	8	7
2	8	9	1	9	6	7	8	2
1	2	6	9	8	7	8	9	2
8	7	9	2	2	8	6	9	1
6	2	7	8	9	1	9	2	8
9	9	2	6	2	8	1	7	8
8	8	1	9	7	2	9	2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